

반도체

하반기 가격인상 가능성 확대



더 많은 리포트 보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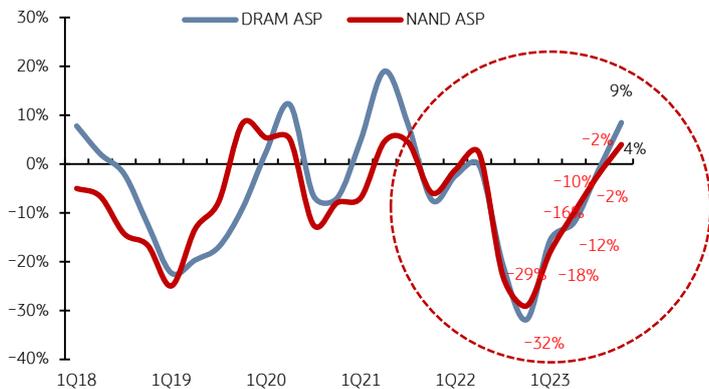
3분기 DRAM 계약가격 인상 추진

— 6월 14일 시장조사기관인 트렌드포스 (Trendforce)에 따르면 D램 업체들은 NAND에 이어 DRAM 일부 제품에 대해서도 3분기 계약가격 (contract price) 인상을 추진 (3Q21 이후 2년 만의 가격 인상)할 것으로 전해졌다. 이는 ① 공급측면에서 D램 3사의 감소 효과가 뚜렷해지고, ② DDR5, LPDDR5X, HBM 등 스페셜티 (specialty) D램 공급이 타이트해 수요대응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.

4분기 ASP 상승전환 예상: DRAM +9%, NAND +4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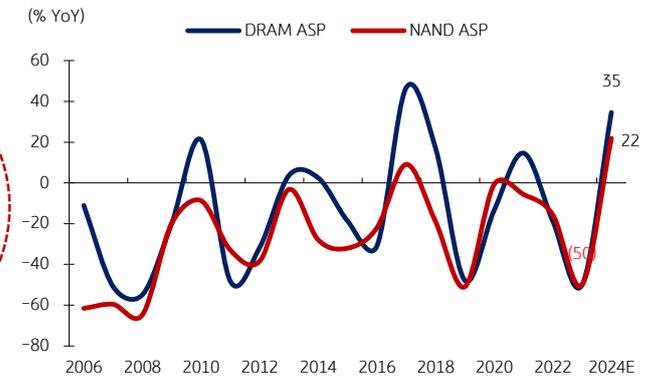
— 하반기 DRAM, NAND 가격상승이 전망되는 이유는 ① DDR5 양산을 위한 1a 공정 확대와 삼성전자, 마이크론이 각각 올해 3분기와 내년 1분기에 HBM3 대량 양산을 준비하며 자연스러운 생산능력 감소 (capa loss)가 발생하고, ② 최근 1년간 (3Q22~2Q23E) DRAM, NAND 가격이 80% 하락하며 현금원가에 도달했기 때문이다. KB증권은 3분기 DRAM, NAND 가격 하락이 축소 (-2% QoQ)될 것으로 전망하고 4분기에는 상승전환 (DRAM +9%, NAND +4% QoQ)을 예상한다. 특히 삼성전자, SK하이닉스는 HBM3 직접적 수혜와 더불어 신제품인 DDR5 출하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어 이 같은 고부가 제품의 출하확대는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 요인이 될 전망이다. 최선호주로 삼성전자, SK하이닉스를 제시한다 <그림 1, 2>.

그림 1. 4분기 DRAM, NAND ASP 상승 전환



자료: Trendforce, KB증권 추정

그림 2. 2024E ASP: DRAM +35%, NAND +22% YoY



자료: Trendforce, KB증권 추정



투자자 고지 사항

KB증권은 자료 공표일 현재 [삼성전자]을(를)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의 발행자 및 유동성공급자입니다.

KB증권은 자료 공표일 현재 [SK하이닉스]을(를)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의 발행자 및 유동성공급자입니다.

KB증권은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
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

본 자료 작성자는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

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이 보고서는 고객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계약의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. 이 보고서는 KB증권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일 시점의 전문적인 판단을 반영한 의견이나 KB증권이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개별 투자는 고객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, 이 보고서는 여하한 형태로도 고객의 투자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.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KB증권에 있으므로 KB증권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,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. 이 보고서는 학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,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KB증권에 사전 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.